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6

매일 시간에 쫓기는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갑자기 취재 의뢰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의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재해는 이미 종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마무리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취재 보도의 의미를 다시 파악해 두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진 재해 당시에는 숨쉴 틈도 없이 그저 황당해하며 어느 정도 저항도 시도해 보았지만 너무나 무력한 탓으로 어느새 무엇인가에 얽혀져서는 흐르고 흘러 겨우 이곳에 도착하여서야 간신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쿠시마로 향할 때마다 마음이 놓이는 것은 아마도 같은 고향의 번호를 단 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신문이나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아직까지 조금도 정돈되지 않은 지진 재해 보도가 시시각각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눈물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진재해를 입은 사람이 찾아낸 쉼터인 것 같습니다.

지진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도대체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 지,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되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당시 '전도할 절호에 찬스' 라든가, '복음의 부흥기' 등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 먼 세계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만 같았고 위화감마저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머리 속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아마 배선이 서로 엉클어지거나 혼선돼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깊은 상처로 인해 감성만이 묘하게도 섬세하고 강해져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저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시려는 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람객과도 같은, 그리고 황당하고 혼동된 상황에서 저희 자신을 유지하려는 프로그램에 손잡고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나 해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긴장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찮은 일에도 기가 꺾여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가슴을 억누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픈 마음들을 애써 봉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억제할 수 없어 갑자기 솟구치는 슬픔은 마치 거센 파도와도 같이 반복해서 우리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 무엇인가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전신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현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는 생각에 빠져버려 우울해지는군요. 죄송합니다.

괴로움을 밀거름 삼아 내일을 향하렵니다. 흘린 눈물만큼 빛을 발하렵니다.

이대로 변함없이 나아가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모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두운 세계로 오신 구원의 주님은 슬픔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성서에서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 말씀이 더 한층 빠속 깊이 스며듭니다.

고향과 집 그리고 교회마저 잃은 우리에게 숙박할 곳이 없어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느낌이 듭니다.

지진 재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중에도 변함은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주님은 어두운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분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 위한 여로였던 것이었는지요. 우리들을 사용하기보다 오직 우리들을 사랑하기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전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시다.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께 황금을, 그 분을 예배하는 향기, 곧 하늘 가득히 오르는 향기를,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주신 그분의 몸에 바를 몰약을 드리도록 합시다.

앞 뒤도 분별할 수 없는 여로가 시작되어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끝나버릴 것 같았던 이 연말을 우리들 곁에서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구세주를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한 해의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아니 이러한 해였기에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 재해의 해에 맞이한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탄생은 그 후 전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양치는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지진재해의 극한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주셨는지를 소리높여 전하고자 합니다.

지진 재해 초기에는 기독교 관계의 취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또한 해외 미디어등으로부터의 취재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재해 당시에는 하루 하루 살아가기에 벅차서 거의 대부분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께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느낍니다.

이 나라에서 천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거대 지진 재해를 당한 그 와중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2000 년 동안, 당시의 사건이 온세계에서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지진 재해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우리들도 전해야한다는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철과 비행기를 이용해,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계속 간증하고자 합니다

지금 밖은 하얀 눈으로 덮인 경치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마마쓰(浜松)에서 야마가타(山形)로 넘어가면 얼어붙어 버릴 것만 같은 추위로 눈부신 소국의 은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아름다운 은세계를 보니 한층 더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을 실감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 재해를 입은 후, 한 해의 겨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 월 22 일(목) 하마마쓰(浜松)에서 야마가타현(山形縣) 길목에 들어서며  
사토 아키라(佐藤 彰)